

사설

새 시대를 위해 꽃등을 밝히자

현대 한국 문화의 움직이는 주체 세력은 이른바 N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컴퓨터나 이메일, 혹은 핸드폰 등을 통해 손쉽게 의사를 소통한다. 필요에 따라 쉽게 움직이고 쉽게 헤어진다. 과거의 윤리나 도덕에 얽매이지 않으며 사회의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남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 몰입하며, 남을 간섭하지도 않고 남의 간섭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들이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등은 이들의 움직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각 계층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찬란의 노래를 하지 않고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이 사회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치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제인들은 이들의 취향을 알아야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저들을 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한국 사회의 주축인에 틀림없다. 더구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한국사회가 보면 젊은 세대의 층은 더욱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불교계 역시 저들과 소통할 통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꽃등이 거리를 장식한지 오래다. 시내든 농촌의 들녘이든 아니면 산간의 사찰이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향연을 드러낸 곳은 어디나 꽃등이 있다. 낮이면 가로수에 걸려 하늘거리는 모습이 한 떨기 꽃과 같거나 밤이면 형형색색으로 빛나며 거리를 밝히고 있는 모습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가슴에 새겨 보기도 한다. 꽃이나 빛으로 환생하여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온몸이 저리도록 감동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꽃과 빛이 아름답고 향기가 짙을수록 그 꽃과 빛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재생하길 바라는 것 역시 불교도들의 소망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찬란한 신문의 꽃과 빛으로 화려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서원이 있기에 N세대에 대한 관심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은 무상의 법칙 속에 전개되고 있기에 특별히 어느 계층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도 애착이러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무집착이 최고의 미덕은 아니다. 인류의 문명이 눈부신 진보를 거듭했다고 말하지만 문명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저변에는 아직까지도 인간들의 원시적인 야수성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상고주의에 머물러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간들의 이기심이 평화, 자유, 환경 등 인류문명의 소중한 가치들을 과멸시키려 하고 있기에 정치적으로 진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간들의 무명으로 엮여진 것이 인류사 내지 인류 문명사라는 점에서 이 시점을 반성하려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문명을 위해 이 시점을 중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N세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이다. 적어도 이들과 무명에서 벗어나 문명을 창출해 가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 이들과 왕래할 교토를 개설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불제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화두이며, 여래께 올릴 수 있는 최상의 찬탄이요 현화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승려법 개정안에 대해) 불교계는 다수의 불교의원을 무시하고 의사표현의 길을 차단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자는 분들이 있다.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호림)

△종헌개정을 통해 불교계를 사면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징계 당사자도 참회 입장을 전명했다. 별도의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하게 걸러내면 된다.(현웅)

△불교인들이 사찰에 살고 있고 도제도 두고 있다. 그런데 10

종정·원로회의 '의지' 종회에서 외면

조계종 멸빈자 사면 불발이 남긴 것

'멸빈자 사면은 NO, 제적 이하 징계사 사면은 YES'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의 이번 선택은 중앙종회의 역할과 법장 스님의 향후 종단 운영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종회는 멸빈자 사면에 대한 '사전 합의'를 깨뜨림으로써 그 위상과 신뢰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평화=멸빈자 사면이 종회에서 논의되고 종헌개정안이 투표까지 갔다는 사실 자체는 종회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부결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 필요성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고, 여기까지 상황을 전개시킨 총무원 새 집행부의 노력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회 역시 해묵은 계파 간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이 종헌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계파 간 사전 합의가 깨짐으로써 그동안 종회를 감지 않은 시선으로 보이는 종도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겼다.

'계파간 이해 여전' 비난 면하기 어려워

멸빈이하 사면·종헌개정안 표결 '성과'

●무엇을 남겼나= '합의 정신' 실종은 종회가 임의 열 개라고 할 말이 없다. 종헌 개정안이 상정된 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기왕 사면할 바에는 멸빈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종회 관계자들도 사전 합의가 된 만큼 개정안 통

과는 시간문제라며 자신했다. 그러나 투표결과 반대파 찬성보다 10표나 많았다. 종헌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각 계파 주장들 간의 '합의'가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돼버린 것이다.

일부 종회의원은 "두 계파가 쇼를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냐"며 흥분하기도 했다. 결국 종회는 '대의'와 '합의'가 통하지

않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했다.

종헌 개정안 부결은 종정스님과 원로의원 스님들의 권위에도 적지 않은 손상을 입혔다. 종정 법전스님과 원로회의에서 몇 차례씩이나 사면을 촉구했지만 결국 종회는 이를 거부했

다. 제적 이하 징계사 사면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사실상 이번 사면논의의 핵심이 멸빈자였다는 점에서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종회가 안게 된 가장 큰 부담은 '화합종단'의 대의를 거슬렀다는 점이다. 멸빈자 사면에 대한 반대 정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정서를 하나로 묶어내야 할 종회가 이를 외면했다는 것은 책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향후 전망=총무원 집행부는 다음 종회에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회는 이번 종헌 개정안 부결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종정스님이나 원로회의가 또 다시 사면을 촉구하고 나설 경우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총

징계사사면·경감내용

- ▲사면복권=관행, 현대, 동하, 광석, 보연, 선광, 현호, 법일, 영하, 자고, 종언, 문수, 법철, 법기, 무관, 원범, 지근, 동출, 현진, 정현, 법민, 도견, 탄공, 부동, 도오, 무영, 명철, 만성, 덕인, 도준, 현일, 정림(이상 32명)
- ▲공권징지 2년=회영, 원광(이상 2명)
- ▲공권징지 3년=덕륜, 각운, 법열, 대우, 동성, 영환, 성초(이상 7명)
- ▲공권징지 5년=해관, 정빈, 혜일, 성해(이상 4명)
- ▲공권징지 7년=상도(이상 1명)
- ▲공권징지 10년=현수, 덕수, 설초(이상 3명)

무원장 법장스님이 더 적극성을 펼 경우,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종회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수도 있다.

한명우 기자 mwu@buddhapia.com

임시종회 주요 발언내용

년간 종무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모양새만 사면이고 내용상으로는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종광)

△종단 화합을 하자고 멸빈자 사면을 논의하는 것이다. 경과 기간을 완화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영담)

△기왕 할 바에는 10년 보다는 3년에 준해 제한 규정을 두자.(탄우)

△종회 각 모임(계파)을 충분히 실효했고, 사전에 (통과시키기로) 약속도 했다. 그런데 부결됐다. 신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망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약속과 합의는 다 어디로 갔나. 무엇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나. 비겁하다. 언제까지(종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나. 종도들에게 무슨 체면이 서겠다. 스스로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종헌개정 부결후, 종광)



불교음해 즉각 중단·사과하라

조계종, SK시주금 사건관련 검찰비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승가사 시주 외압혐의 사건과 관련, 조계종은 4월2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권선을 뇌물수수료 때도 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다.

조계종은 총무원과 교구본사주지 일동 명의로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시주금을 뇌물로 둔갑시키

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사찰의 불사에 차질을 빚게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의 명예훼손과 피해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며 "검찰은 불교에 대한 음해를 즉각 중단하고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2000만 불자들은 규탄과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불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검사를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사장에게 권선한 바는 있으나, 공직을 이용한 강압이나 승가사로부터 어떤 반대급부로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명우 기자

바티칸·천주교·기독교

석탄일 봉축 메시지 발표

바티칸 교황청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바티칸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마이클 피츠제럴드 대주교는 "부처님 오신 날에 그리고 모든 날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도 "함께 인류평화에 기여하자"는 내용의 봉축메시지를 발표했다.

한명우 기자

본사사령

강신재 김은경 오유진 이동혁 한상희

총 취재부 수습기자

2003년 4월 28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유승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한나라당은 7천만 겨레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 박희태

한나라당 불자회 회장 하순봉

한나라당 불자회 국회의원

강신성일 김기배 김병호 김영일 김용갑 김용균 김윤식 김용환 김진재 김찬우 김학송 도종이 박상규 박헌기 서병수 손희정 양정규 엄호성 윤두환 이상배 이원형 이인기 이해봉 임진출 전용원 정갑윤 정문화 최돈웅 최병국

한나라당 불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 www.hannara.or.kr

